

내년 中企 52시간제 단속 안한다...일 몰릴 땐 연장 허용

국회서 탄력근로제 개정안 불발...정부 보완대책 발표

현행 제도서 준수 어려워 특별연장근로인가 사유 확대

내년 1월1일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의 안착을 위해 정부가 1년의 제도기간을 부여하고 비(非)동상적인 업무량 급증에도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52시간제 보완 근로기준법 개정입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나온 것이다.

우선 50~299인 기업에는 내년부터 1년 동안 제도기간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장시간근로 감축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을 위반이 확인돼도 충분한 시정기간(총 6개월)을 부여해 기간 내 기업이 자율개선토록 했다.

만일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6개월 내 시정한다면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게 된다.

제도기간 중에는 중소기업이 최

대한 신속히 주 52시간제 이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력채용, 추가 비용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의 경우 대기업과 달리 현행 제도 아래서는 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은 원래 재해나 재난, 그 밖의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노동시간 한도가 줄어들어든 탓에 제도 안착을 위해 '특별한 사정'을 폭넓게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 △갑작스러운 시설·설비 장애·고장 등 돌발상황에 긴급대처 등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있고, 단기간 내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고용부 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으로 사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처럼 내년부터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을 수 있는 사유의 대표적 예시로 고용부는 △응급환자 구조나 치료 △갑작스레 고장난 기계의 수리 △대량 리콜사태 △원청의 갑작스런 주문으로 촉박한 납기를 맞추기 위해 일시적 연장근로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등을 들었다.

다만 제도 취지와 노동자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 인가하고, 사용자에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각 부처에서도 소관 업종별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조업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 중소기업에 정책자금과 기술보증을 우대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등 시설설비 구축도 최우선 지원하는 식이다.

건설업에는 주 52시간제 적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건설공사 단가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시정단가 산정체계를 개편하며, 혼령으로 운영 중인 공기 산정기준을 법제화한다.

소프트웨어(SW) 분야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의 SW 개발사업 조 기발주를 추진하는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발주문화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선버스 업종에도 3000여명 버스운전인력 양성, 취업박람회 개최 등 신규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벽지노선 운행 손실금 지원 등 비용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300인 미만 기업의 여건을 고려할 때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입법이 늦어짐에 따라 오늘 불가피하게 보완조치를 발표,

추진하게 됐다"며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정부의 인가 제도가 아닌 노사가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제도개선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이마트 눈꽃산행 기획 11일 오전 이마트 성수점 스포츠 매장에서 모델들이 이마트 겨울 등산용품 할인 행사인 '눈꽃 산행 기획전'을 소개하고 있다. 이마트는 12월을 맞아 전국 유명산들이 눈꽃으로 뒤덮이면서 등산용품에 대한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해태제과, 3배 커진 '오에스 Big'



해태제과는 기존 오리지널 제품보다 3배가량 크기를 키운 '오에스 Big'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오에스 Big의 가로와 세로 폭은 기존보다 2cm씩 늘어났다. 높이는 1cm 더 높다. 중량도 2.7배 늘어난 80g이다.

해태제과는 케이크 시트를 3겹으로 늘려 제품을 만들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수분함량(20%)이 만든 촉촉함도 특징이다.

오에스는 케이크 대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신제품은 한 개만으로도 케이크로 활용할 수 있다. 기존 오리지널과 미니 제품으로 다양한 조합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초코 크림 뿐 아니라 바나나 크림도 사용하여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가격은 천원대에 형성되어 있다.

11월 금융권 가계대출 6.5조 ↑...은행 주담대 증가 '올해 최대'

지난 11월 전(全)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이 6조5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집행되기 시작하면서 은행권의 주담대 보대출(주담대) 증가액은 지난해 12월(4조9000억원) 이후 11개월 만에 최대치인 4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서민형안심전환대출로 제2금융권 대출이 은행권으로 이동하면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및 주담대 잔액은 모두 감소했다.

1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6조5000억원으로 전월의 8조3000억원, 전년동월의 8조원보다 다소 둔화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가계대출 증가액 규모는 48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8조5000억원)보다 20조2000억원 줄었다. 2017년(1~11월 84조5000억원) 이후 증가세가 둔화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년 동월대비 축소되며 안정화되는 가운데 은행권은 소폭 확대됐다"며 "이는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출시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전세대출 증가세가 이어진 영향"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은이 발표한 11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881조898억원으로

전월말보다 7조원 증가했다.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 8월 올해 최대치인 7조4000억원을 기록한 뒤 9월 4조8000억원으로 둔화했으나 10월(7조2000억원)과 11월(7조원) 2개월 연속 7조원을 넘었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폭은 10월 4조6000억원에서 11월 4조9000억원으로 더 늘었다. 이는 지난해 12월과 같은 수준으로 11개월만에 최대치다. 한은 관계자는 "서민형안심전환대출이 집행되기 시작한 게 주된 영향을 미쳤다"며 "그 규모는 3조1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올해 1~11월 누적 기준 은행 주

담대는 전년동기 대비 40조1000억원 늘었다. 이는 2017년(37조2000억원)과 2018년(37조8000억원)의 1년 증가 규모를 웃도는 수준이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월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 10월 크게 늘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5월 4000호, 6월 6000호, 7월 9000호로 증가한 뒤 8월 7000호, 9월 6000호로 주춤했으나 10월에 1만호로 다시 늘었다.

반면 제2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4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월 증가액 1조1000억원보다 1조5000억원 축소된 규모다.

특히 제2금융권 주담대 잔액은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전환과 리스크 관리 노력 등의 영향으로 1조1000억원 감소했다.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